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3일 월요일 음 4월 9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세계 최대' 베이징 신공항 9월 개항

오늘부터 정식 시범 비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이 9월 개항을 앞두고 13일부터 정식 시범 비행을 시작한다.



중국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전경.

12일 관영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중국 국적 항공사들이 13일 다싱 공항에서 주요 기종의 시범 비행을 시작한다.

고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며 "다싱 공항은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협력 발전의 상징적인 공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 비행 대상 기종은 보잉 747, 에어버스 A359, A380 등이다.

전체 면적이 47km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다싱 공항은 올해 9월 30일에 정식 개항할 예정이다. 이 공항은 2025년까지 연간 7200만 명의 승객과 화물 200만t을 처리하고 이착륙 횟수 62만 차례를 달성할 전망이다.

중국민항공은 지난 5일 다싱 공항의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에 연료 주입을 시작했고, 항공유 송유관 역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다싱 공항을 장기적으로는 연간 1억 명의 승객과 화물 400만t, 이착륙 88만 차례의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공항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중국민항공은 13일 시작되는 정식 시범 비행을 통해 다싱 공항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중국민항공 관계자는 "다싱 공항은 당과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한리일보 (Hanri Ilbo)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절반의 레이스를 막 통과하던 2016년 8월, 임희룡 제주 도지사는 '동아지중해 문화예술의 섬' 비전을 들고 제주도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존재 이유를 묻다

발언을 구체화하는 일로 여겨졌다. 6대 사업 중 일부는 없었던 일이 되었고 더러는 문화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둘러라도 제주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공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돌아보면 그 시점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당시 발표가 제주 문화예술 기관·단체장 등 4명이 동석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릴 수 있지만 거버넌스 방식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제주 문화정책 발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기실, 제주 문화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 스무살 청년기 진입을 앞둔 제주문화예술재단이다. 문예재단의 역량이 곧 제주도 문화정책의 '수준'일 수 있다.

2001년 4월 25일 개원해 9대 이사장까지 맞이한 문예재단이 현재 목표로 잡은 사명은 '문화로 풍요롭고 예술로 행복한 제주 만들기'다.

90쪽 분량의 보고서에 지난해 성과를 차곡차곡 담았지만 대부분 국비와 매칭한 전국 공통 정부 사업이거나 공공기관 대행 사업이었다.

현행 문예재단 조직도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업무 현황에 나와있는 59명 중에서 정책 개발, 사업 발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다.

정착연구 기능을 두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일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정착연구 기능을 두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일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문예재단 사업 분석·개발과 연계해 정기적인 포럼 운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일이다.

제주문예재단 설립·육성 조례에 나타난 수행 사업의 첫째는 문화예술정책 개발이다. 그 바탕 위에 가능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문화예술 정보 교류 등이 뒤를 이었고 행정기관의 위임과 위탁사업 집행은 한참 밀려나있다.

열린마당

연동지역주민의 범죠평화활동에 참여하다



김 상 현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5월 7일 연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범죠평화지역 범죠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안심거울길' 설치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사업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으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세대 밀집지역 공동주택과 공동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역의 범죠평화구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원처리 알리미 SMS서비스를 아시나요?



한 명 속 서귀포보건소

'민원(民願)'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과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병·의원과 약국 등의 의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규정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규정에 의해 갖춰야 할 구비서류를 전화 통화로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민원인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원스톱서비스를 원하고, 신고 후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에 영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해 10일간의 여유를 갖고 신청할 것을 조언한다.

서귀포보건소는 민원 신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올 4월부터 민원 신청부터 완료될 때까지 신고서 작성 방법, 진행 절차, 그리고 세무와 등 타부서 처리사항, 세무서 신고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점검 시 청렴서한문을 발부해 인허가 민원 처리시 부패와 부조리 방지도 힘쓰고 있다.

민원접수 후 진행상황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SMS서비스를 통해 어느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민원 편의를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서귀포시 공무원으로서 민원인들의 원망(怨望: 못마땅하게 여겨서 닦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 원망(願望: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 한다.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Hearing Aid Fair' (국제보청기프라자) with details on discoun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Jusunseom' (주수큰섬)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nsultation and listing.

Advertisement for 'Jiwoo Remodeling' (濟州 리모델링) offering renovation and construction services.

Advertisement for 'Yonsei Podiatry Clinic' (연세포드테비뇨기과) providing podiatry services.